



- 연중 제17주일 - 2019년 7월 28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09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8지구 - 법원리 성당



설립 1963년 7월 4일 전화 사무실 031-958-0811 주소 경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34번지

제1독서 창세 18,20-32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나.2ㄱㄴ과 3,6-7ㄱㄴ,7ㄹ-8(◎3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 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

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웁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콜로 2,12-14

복음 환호송 로마 8,15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루카 11,1-13

영성체송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 나도 잊지 마라.

기도했나요??



정호영 요셉 신부
원당 부주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식사 전 기도’가 전부인 신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 ‘힘들어요. 바빠서요.’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기도가 힘들까요? 바쁘면 기도할 수 없을까요?

책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일상생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불을 정리하며 바치는 기도’, ‘밥을 풀 때 바치는 기도’, ‘현관문을 나설 때 바치는 기도’ 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바칠 수 있는 기도문이 꼭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책의 느낌대로 대충 지어보면 이런 식이겠네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새 하루와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씻을 때, ‘주님, 저의 외모 뿐만 아니라, 저의 죄 또한 깨끗이 씻어주소서.’ 밥을 풀 때 ‘주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생각할 수 있는 은총주소서.’ 신발을 신을 때, ‘주님 오늘도 저희 발길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잘합니다. “하느님과의 대화!” 그러면 왜 친구들, 이웃들과는 잘 대화하면서, 하느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결국, 정작 중요한 마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내 대화의 상대가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편하게 말씀하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청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기도문만 반복해서 바치는 기도가 힘들 때는, 그냥 하느님께 속마음을 친구한테 하듯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은 기도가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요, 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잘했나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것을 행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

은혜와 미끼

저수지에 붕어네 학교가 있었다.

어느 날 특강 선생님이 잉어를 모셔왔다.

잉어는 붕어들에게 자기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나는 못된 망나니였습니다. 신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고 늘 불만이 많았으며,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을까 두리번거리고 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내음이 솔솔 나지 않겠어요? 수초가 있는 물이었지요.

평소에 어른들은 그곳에 간 우리 이웃들이 어디론가 잘 사라져 버리는 귀신터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런 걸 믿을 내가 아니었습니다.

살며시 가보니 먹음직스러운 지렁이들이 여기저기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맛 좋은 먹이를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냉큼 물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낚시꾼의 미끼였습니다.

순식간에 낚시에 걸려 공중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입이 찢어지는 통에 낚시에서 벗어나 살아 돌아오게 되었지요.

내가 이 경험으로 말할 것이 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이 물이 곧 은혜이지요. 물 밖으로 나가 보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어 갈 미끼이니깐요.” ☘

별로 위대하지 않은 엄마입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위대하다’ 같은 헛소리는 대체 누가 만들어냈을까? 아이들 등쌀에 시달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내 귓가에 그런 말을 속삭인다면 나는 그에게 절교를 선언할 것이다. 엄마가 된 지 5년 밖에 안됐지만 확실히 알 수 있다. 엄마는 신의 대용품(?)이 아니며 위대하지 않다. 물론 뛰어난게 훌륭한 엄마도 있겠지만 엄마라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엄마이기 이전에 원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별생각 없이 모성신화를 소비하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나도 애 낳고 키우면 슈퍼우먼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나의 감정보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엄마. 하지만 엄마 된 지 5년 차인 지금, 슈퍼우먼 흉내도 못 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해진 건 있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감정기복이 심하고 쉽게 화를 내며 다소 부정적인 사람이다. 희망보다 절망을 자주 느끼는데 육아에 있어 가장 절망적인 건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다. 내 유전자를 물려받고 내 뱃속에 아홉 달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서럽게 우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맥이 탁 풀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다. 예라 모르겠다! 엄마는 위대하긴 개뿔!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혼자 있고 싶다고 내적 비명을 지르다가 막상 늦은 밤에, 식구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그때 또 외롭고 허무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가를 자문해본다. 그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또 지극히 정상이다. 남편과의 불화가 있다거나 아이들이 유난스럽게 극성맞은 건 아니다. 당장 잡지 못한 빛이 있어서 재산이 가압류 당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양호한 상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건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극한 상태에 내몰리는 일을 몇 번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것은, 엄마가 언제나 위대한 것은 결코 아니며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낳은 이 작은 인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예쁘고 신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옹아매는 멍에가 돼버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만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다른 엄마들은 이 괴로움을 대체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 것일까.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보람과 성취보다는 좌절과 자책을 더 많이 느끼는 엄마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좋겠다. 나같이, 전혀 위대하지 않은 엄마도 있어요. 때론 아이들이 엄마보다 더 강해요. 주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믿어요.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한국 신흥 유사 종교의 특징 1

3.1. 성경에 대하여

3.1.1. 그리스도교의 성경과 계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원천이다. 계시(Revelation)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분임을 알려준다.

3.1.2. 계시, 예언, 묵시

일부 사람들이 '계시'를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것'(흔히 말하는 예언)과 혼동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안에는 '예언'과 '계시'에 대한 물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 하느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이다. 곧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따른 회개로의 초대이다.

묵시(Apocalypse)는 계시나 예언과 다른 것이다. 묵시는 박해나 배교의 위험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을 말하며, 그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는 권고의 말을, 박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신앙의 언어로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문학기법이다. 다니엘서의 일부와 요한묵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묵시록"을 개신교에서 "계시록"이라고 부르며,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 일부 사

람들이 이 책을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예언서'라며, 현재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고라고 주장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이들은 역사를 구약시대/신약시대/ '계시록 시대'라는 시대구분론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나 요한 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신약성경의 일부"이다.

3.2. 근본주의

3.2.1.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문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역사-언어적 해석에는 관심이 없다.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것이 오역이나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도, 그대로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들은 특정한 구절이나 단어에 집착한다. 앞뒤의 문맥에는 관심이 없다. 특정 단어(본래의 의미는 상관없는 한글 번역)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과장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 데 이용한다. 이러한 이들을 만났을 때 앞뒤로 몇 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들의 오류를 금세 찾을 수 있다.

3.2.2. 성경은 긴 역사를 거치며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는 언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역사-문화적 배경과 고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하지만 성경은 문맥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앞뒤의 단락과 더 큰 단위를 참고하며 읽으면' 난해한 구절들도 이해할 수 있다.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

의정부교구
♥ 약혼자 주말

20
19



혼인식은 하루,
혼인생활은 평생

*A wedding is a Day,
A marriage is a Lifetime*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상: 예비 부부 및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18차 10/18 (금) 20시 ~ 20 (주일) 17시

(접수중, 선착순 8쌍)

-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http://cafe.naver.com/ujbee>



천주교의정부교구 가정사목부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아가 3,2). 이 마음에 닿는 성서구절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7월 22일)에 독서말씀으로 봉독된 아가에 나옵니다.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42). 이는 연중 16주일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의 마지막에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칠월의 끝자락에 가까이 다가가며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만나고 묵상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보여주는 세 가지 얼굴들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 인내롭게 겪어내거나 애써 맞서거나 아니면 타협하여 이에 따라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수동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의욕을 가지고 오랜 준비를 하며 기획하고 계획하며 추진하고 성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얼굴을 오래 만나다 보면 인생이란 내 손에 달린 것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러한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시기마다 그 양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얼굴이 또 다른 얼굴을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신앙인은 살면서 점점 더 강하게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가는 사람들인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물로 주어졌고, 더구나 소명에 의해 정점을 향하고 있는 신비로운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그저 겪고 견뎌내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정하고 이루어내는 것만도 아니라,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이에 응답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인에게 인생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부르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신비입니다. 비록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깨달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사랑의 부르심’이 이끄는 인생을 그들의 몸과 마음과 행위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님을 찾고, 님의 말씀을 듣고, 님을 위해 일하고, 거듭거듭 님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의 부르심을 저 깊은 중심에 두는 삶을 생각하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을 듣고 싶어집니다. 짧지만 영혼을 사로잡는 곡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Ich ruf' zu dir, Herr Jesu Christ, BWV 639). 사랑받는 오래된 찬송가인 이 곡을 바흐는 오르간을 위해 편곡하여 <오르간 소곡집>에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페루치노 부조니는 이 곡을 다시 피아노를 위해 편곡하였고,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 곡을 연주하고 녹음하였습니다. 들을때마다 마음을 울립니다. 최근 각광받는 아이슬랜드 출신의 젊고 영민한 피아니스트 비킹구르 올라프손의 연주 역시 뛰어납니다. 🎹

YOUTUBE로 보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S. Bach
“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Ich ruf' zu dir, Herr Jesu Christ,
BWV 639(Transcr. by Ferruccio Busoni)



7월 28(주일) 11시 건진성사 - 양주2동 성당

교구장 동정



교구 소식

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8/2(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구 홍보국 영상아카데미 19기 모집

대상 본당 홍보/기획분과 담당 및 일반 신자

장소 천주교의정부교구청 지하 1층 미디어 교육실

인원 12명 / 교육비: 5만원

일시 8/17~10/12 매주(토) 09:30~12:00 (추석연휴 제외)

문의 홍보국 031-850-1435

내용 가톨릭과 미디어, 영상 편집(프로그램:모바비)

행주 성당 미사(전대사) 031-974-1728

8/5(월) 11시 교황직할 성모대성전 주보 축일 8/15(목) 11시 성모 승천 대축일 /고백성사 10시

8월 평화사도 월례미사 -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8/5(월) 19시~21시

내용 평화 음악 피정과 미사

미사 강주석 신부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8/5(월) 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권봉 국별도, 최창호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청년 도보순례

일정 8/15~18(3박4일)

대상 하루 20km 도보순례가 가능한 청년

접수 8/4 까지

비용 본인부담 7만 원(14만 원 지원-청소년국, 순교자공경위원회)

문의, 접수 청소년국, 순교자공경위원회(031-850-1498)

생태영성학교

현재 생태 위기를 바라보며, 생태적 회개와 바른 생활로 이끄는 이론 6회, 탐방 2회로 구성된 교육

이론 8/26(월)~10/7(월) 19:30

탐방 9/7(토), 10/12(토) 오전 10시

장소 신앙교육원

수강비 6만 원(강의별수강가능: 이론 1만 원, 탐방 2만 원)

접수 8/23(금) 까지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1~2

2019년 청년전례학교(보수과정) 안내

교육내용 전례 활용에 필요한 스피치/성가/복사 교육(<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일시 9/7(토) 10시~18시

대상 이전(2012~2019년) 청년전례학교 기본과정을 수료한 청년

장소 신앙교육원

접수기간 7/12(금)~8/24(토)

참가비 1인 2만 원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850-1460)

나무그늘 사진 공모 알림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순례자의 얼굴 / 내가 바라본 평화 / 나의 이웃은” 문의 031-850-1447 samok@uca.or.kr

※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 피정 ▶▶

행주 성당 성모 신심 미사(전대사)

일시: 8/3(토) 11시 (미사, 목주기도)
매월 첫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치유피정 교구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금) 21시~01:30시 마두동 성당(8/2)
주제: 제 8주 온유
강사: 서근수 비오신부(교구 제 6지구장)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홍성남 신부님과 성지순례 / 02-755-3009

아키타 순례: 9/23~9/26
지도신부: 홍성남 마태오
수원교구성지: 8/2, 8/9, 8/20

제43차 효소단식.침묵.복음서 통독 4박5일 피정

일정: 8/26(월)~30(금), 제44차: 12/2(월)~6(금)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1인: 38만 원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피정

일시: 9/21(토)오후3시~22(일)오후2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이한택 주교와 함께하는 첫 토 피정

일시: 8/3(토) 10시~14시 미사(점심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일시: 8/2(금)18시~8/4(주일) 15시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무료 성경 통독 피정

매월 마지막(화) 7/30, 11시~16시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고양시호수로76-17)
문의: 031-926-3090, 010-5267-1380

성모승천 전례피정

일시: 8/13(화)16:30~8/15(목)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19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7/31(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을 후원하시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 (전화, 문자 모두 가능)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성모신심미사

일시: 8/3(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서울역 1,4호선 14번출구(9
시출발), 일산동구청주차장앞(9:30출발),
인천주안역북광장(9시 출발), 동암역(9:5출
발), 8/1 17시까지 예약필수

문의: 02-379-8081, 010-4550-6955

마리아사제 운동 첫 토요 신심미사와 체나콜로

일시: 8/3(토) 10시 미사, 11시 기도
장소: 지금동 성당(동부), 후곡 성당(서부)
준비물: 성모님 메시지 합본, 묵주
문의: 교구 체나콜로 010-9272-4660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일시: 8/7 첫(수) 9:30~16:30
장소: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윤민재 신부, 이현주 회장
-접수·회비 없음, 김밥 판매(2천 원), 미사 준
비, 개인컵준비(현장판매) 지하철 2호선 을지
로입구역 6번 출구,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문의: 010-2367-2297, 010-5674-8511
대표전화 02-777-1773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없는 마음
강사: 김민 신부
일시/장소: 8/2(금) 10시~13시/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무료, 미사봉헌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8/3(토) 09:30~12시, 10시 미사
장소: 호평동 성당(남양주시 호평동 556번지)
문의: 010-7131-2033 파티마의 세계 사도
직 의정부지부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피정: 8/10(토)~8/18(일) /48만 원
성경완독피정: 8/23(금)~8/31(토) /48만 원
여름개인피정프로그램: 8/9(금)~11(일)
문의: 010-3340-0201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기간: 8/23~25, 9/1~4(추차도), 9/7~9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기간: 8/6~8, 8/10~13, 8/15~18
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 모집 ▶▶

의정부 EXODUS 직원 모집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을 돕는 업무
대상: 영어사용가능자 (중급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원서 마감 8/4
접수: 이메일 umwc2000@uca.or.kr
문의: 031-878-6926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일산복지관)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어르신(3,4,5등급)
기간: 수시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문의: 031-975-1344
www.ilsan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법원리성당 반주자모집

서류: 자기소개서, 교적, 신부님추천서
기본: 주4시간(11시 교중미사)
문의: 031-958-0811, 010-4708-0759

퇴계원성당 주방근무자(식복사) 모집

근무: 일 3~4시간
서류: 이력서
문의: 사무실 574-1784

한마음수련원 직원모집

근무직책: 팀장 /담당업무: 사무, 행정, 회
계, 예/계약, 고객응대 등
서류마감: 8/23(금)까지
본원 홈페이지 hanmaum84.com 확인
중.고생을 위한 <살레시오 3S영성 리더십교육>
일시: 8/9(금)~8/11(일) 9:30~16:30,
마지막 날 12시까지 /장소: 살레시오교육영
성센터(7호선 신봉역 4번출구)
문의: 02-844-0388, 832-2654

춘천교구 “작은 본당 도우미(재능기부)” 모집

취지: 춘천교구 내 작은 본당의 사목(어르신, 청소년 등)에 대한 도움

분야: 음악, 미술, 청소년 상담, 웃음 치료, 글쓰기교실, 어르신체조 등 (춘천교구 홈페이지 www.cccatholic.or.kr 신청서 참조)

문의: 춘천교구 사목국 메일(ccsamok@hanmail.net) 이나 전화 033-240-6049

모현센터의원 간호사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파주 EXODUS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멘토 모집

다문화가정 여성 친정언니 만들기: 결혼이주 여성들의 친구와 언니가 되어 정서지지를 통해 건강한 삶에 동행할 멘토를 모집합니다.

자격: 35세 이상 60세 미만의 선주민 기혼 여성
인원: 5~8지구 거주 선착순 10명(7/31까지 모집)

교육일정: 8~9월 중 총 4회 교육(토: 10시~12시)

매칭: 총 4회 교육 수료자

접수: 파주 EXODUS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문의: 031-948-8105 멘토링 담당자

서강대학교 외국어교육원 9월 모집

개강: 9/2(8주 과정, 30시간)

문의: 02-705-8081 <http://flec.sogang.ac.kr>

이탈리아어: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 왕초보, 초급, 중급, 고급, 독해, 회화반

스페인어: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여행, 순례 스페인어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 여행, 성

지순례, 취미, 자격증 및 유학 준비생 대상

경의선 '서강대역' 앞 /2호선 '신촌역' 앞

수도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2019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대상: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귀국한지 1개월 이상)

일시: 10/14(월)~11/1(금)

문의(접수): 02-953-0613

주관: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KCFMEA)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성음악아카데미 모집

접수: 7/29(월)~8/30(금) 3개월 수업

(9월~10월~11월)

과목: 오르간, 피아노, 반주과, 성악, 합창지

휘, 작곡, CCM, 관악기, 현악기, 바로크악

기, 국악, 양상בל(남/여 그레고리오 성가·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기타) 등

대상: 연령 무관,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장소: 교회음악대학원(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site>

안내 · 기타 ▶▶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8/17 성모발현성지 4개국 13일 390만 원

9/6 이스라엘 9일(추석연휴) 350만 원

9/16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발현성지 5개국 13일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문의 : 02-319-2533)

9/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17 동유럽 발칸 5개국 12일 385만 원

9/23 터키 그리스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9/14 (추석특집)일본 나가사키 4일 130만 원

9/15 유럽 4개국 성모님발현지 13일 398만 원

9/22 터키-그리스 13일 392만 원

9/28 이탈리아 중부지역 10일 369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 원

9/24 발칸반도 12일 389만 원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 원

문의 : 02-2281-9070 /www.cttour.org

라파엘여행사02-778-8565

9/9 추석 특선 이스라엘,요르단10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9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4일 13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8/3(토) 14시, 8/4(주일) 10시, 14시	가톨릭회관 은하수갤러리	010-3015-1773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시(개인 성소식별 동반)	길음동 본원	010-9900-5811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수시가능(개별상담)	일산풍동본원	010-8848-4053



혼인성사(1) :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8,35)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삼포세대(三抛世代)”

이 말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로 2011년에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이 신조어는 ‘오포세대(五抛世代)’, ‘칠포세대(七抛世代)’로까지 확대되어, 집과 경력 그리고 취미 또는 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한 세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신조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에게 “혼인”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의 필요성과 가치는 점점 외면당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독신주의’ 또는 ‘비혼주의(非婚主義)’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강제적으로라도 무조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을 근본에 두고 있는 것이며, 사랑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칫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젊은 세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혼인 생활의 가치는 물론 사랑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사랑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모든 인간이 타고난 근본 소명입니다. 인간은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녀간의 사랑이 당신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이고 변함 없는 사랑의 표상이 되게 하십니다. (...)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사랑은 풍성할 열매를 맺고, 창조된 세상을 지키는 공동 노력으로 실현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04항)

따라서, 혼인성사는 남녀가 이루는 사랑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톨릭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혼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11)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며 축복임을 생각한다면, 혼인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광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